

# 보배섬 진도의 매력 SNS로 알린다



보배섬 진도군의 매력을 SNS로 알리기 위해 전문 사진작가들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다도해의 비경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보배섬 진도의 매력을 작품사진 속에 담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7일

부터 28일까지 '그림같은 남도풍경 이야기' 밴드 작가 등 12명을 초청했다.

이번 팸투어로 국내 사진작가, 파워블로거, 신문기자 등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등 SNS와 남도풍경 이야기 밴드에 게재하는

전문 사진 작가 초청, 1박 2일 팸투어 실시  
관매도·조도·도리산 전망대 등 찾아 촬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 파급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초청작가들은 "진도군의 독특한 자연 경관에 연신 감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진도를 찾아 아름다움을 느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날 사진작가들은 수천 년의 시간이 깃들여낸 바다의 정원이며, 가고 싶은 섬과 명품마을로 지정된 관매도를 답사하며, 전망의 섬 조도의 제1경으로 '한국의 카프르'로 불리는 상조도의 도리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일몰을 촬영했다.

이튿날인 28일은 도리산 전망대

에서 178개의 섬들 사이로 보이는 일출, 1909년 2월에 첫 불을 밝힌 100년의 전통과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하조도 등대와 계단으로 이어진 산자락의 정자 윤림정에서 내려다보는 해안의 경치 등 조도의 그림같은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같은 자연경관과 관광지의 비경을 SNS를 통해 온라인에 게재하고 바이럴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한층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목포항구축제, 가을 개최 성공 확인

길놀이·파시·어생 그랜드세일 등 항구의 멋 뽐내

2017 목포항구축제가 가을 개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항과 삼화도 일원에서 개최돼 선선한 날씨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목포항구축제는 여름에 열렸으나 10월말 개최를 더 선호하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는 가을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어선이 많이 정박해 항구라는 목포의 지역색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고, 제철 생선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파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축제는 시민, 관광객, 전문공연단 등이 한데 어우러져 오색찬란한 만경기를 연출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치는 풍어파시길놀이로 막을 열었다. 길놀이는 의료관광을 위해 목포를 찾은 몽골 방문단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남진, 태진아, 송대관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 개막 축하쇼 '목포 항구음악회'와 불꽃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된 축제는 목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해산물은 항구를 배경으로 펼쳐진 축제의 진면목을 느끼게 했다. 목포 수산업을 이끌었던 선주들의 2세들이 펼친 어생(漁生) 그랜드세일과 배 위에서 경매사들이 직접 펼치는 선상 경매는 과거 파시와 같은 진풍경을 연출하며 제철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재미를 선사해 큰 인기를 끌었다.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개발해 제조 공방이 특허로 등록된 굴비 '구울비'는 시식회를 갖

고 관람객들에게 먹는 재미를 선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육지엔 재배지인 고하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목화 체험관도 색다른 볼거리로 눈길을 붙잡는 핫플레이스였다. 성인은 목화 열매인 디어를 따먹었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젊은이는 낮선 목화를 신기해하며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삼화수로는 명품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낚시체험은 남녀노소에게 감성돔, 문정(망둥어), 송어 등 유명한 물고기를 구경하는 재미에 낚아올리는 손맛까지 선사했다. 카누, 카약 등 수상 레포츠를 종목으로 하는 삼화수로 율림피크는 동별 대항전으로 열려 경쟁과 화합의 장이 됐다.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을 코스로 해서 진행된 목포유달산비룡대회는 전국 각지의 마라토너가 출전해 다도해와 유달산의 풍광 속에서 바닷바람을 갈았다.

축제는 27·28일 일정을 순조롭게 이어갔으나 29일 오전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어생(漁生) 그랜드세일과 바다콘서트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취소됐다. 바다콘서트는 헤이즈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쌀쌀한 날씨에도 축제장을 찾은 젊은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박 시장은 "올해 축제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해 목포관광의 희망을 보았다"면서 "올해는 성어기에 열려 항구의 매력과 제철 수산물의 맛을 뽐낼 수 있었다. 항구축제는 내년 개통되는 해상케이블카와 시너지를 발휘해 목포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밝혔다.

## 여수 돌산대교 성능보강

내달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교통통제



여수시 대교동과 돌산읍을 잇는 돌산대교가 성능보강 관계로 다음 달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통제된다.

24시까지는 노후 케이블 6개의 교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안전상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다만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익산청은 금요일 13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는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돌산대교 통제에 대비해 시내버스 우회, 셔틀버스 운영,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실시하는

익산청,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노후케이블 교체

평일 거북선대교 이용...금13시~일24시 통행 가능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돌산대교 교통통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에 따른 것이다.

익산청은 오는 2020년 12월까지 172억여 원을 투입해 개통 후 33년이 경과된 돌산대교를 2등급(통과하중 32.4톤)에서 1등급(43.2톤)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1월 6일 24시부터 12월 17일

한편 중앙동 로터리·바림회장·거북선대교 구간 우회노선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84년 개통된 돌산대교의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제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장흥군청 축구동호회, 제8회 전남도 연합회장기 공무원 축구대회 '우승'

최우수감독상 김옥현 감독·최우수선수상 정용찬 선수 수상

장흥군청 축구동호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8회 전라남도연합회장기 공무원 축구대회'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3개 조별 리그전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2일간 5게임을 소화해 내는 뻑뻑한 일정 가운데 장흥군청 축구동호회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앞세워 연승을 이어갔다.

28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전남 동부권 강팀인 순천시청과 접전을 벌

인 결과 2-0의 값진 승리를 거두며 우승기를 손에 쥐었다.

대회 최우수감독상에는 장흥군 김옥현 감독, 최우수선수상에는 정용찬 선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장흥군청 축구동호회는 주말 아침 축구 경기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면서 실력을 쌓아왔다.

김옥현 동호회장은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흥=김종민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